

## 에너지 R&D PD와 표준 코디네이터

요즘 방송의 트렌드는 뭐니뭐니해도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가수 혹은 연예인의 꿈을 안고 열띤 경연을 펼치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삶의 무게 때문에 접어야 했던,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도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 준다. 최근 출범한 에너지 분야 R&D PD와 표준 코디네이터 선정작업을 보면서 가끔씩 TV 오디션 프로그램과 오버랩 될 때가 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해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 원자력 등 분야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이 사업에는 내로라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전문성 등이 평가의 기준이었다고 알려진 가운데 각 분야에서 선정된 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청중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선정된 전문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역량을 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과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는 지적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에너지R&D PD와 표준 코디네이터가 우리나라 전기·에너지 분야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된다.

## BIM의 선진화

전력기술인협회가 분주하다. 최근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 BIM 때문이다.

BIM은 건축설계를 기존의 2D에서 3D로 전환하고 수량·공정 등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설계부터 생산·유지관리까지 모든 정보를 설계상에서 확인·생산·관리하는 기술이다.

최근 해외 선진국은 정부가 발주하는 건축물에 BIM 적용을 의무화하거나 BIM 관련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이 발주하는 건축물에 BIM을 적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 분야에서도 BIM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기 분야에서도 전력기술인협회가 전기 BIM 라이브러리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 전기 BIM의 명칭은 KEBIM, 한국전기BIM이라는 뜻으로,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관련 업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전력기술인협회는 관련 법·제도 개선에 더해 실제 설계현장에서 KEBIM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전기 BIM의 표준화를 이룩하고, 도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KEBIM, 앞으로 도입될 KEBIM이 전기설계시장의 선진화를 여는 '포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KEA

